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Inventory」(I)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최보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전귀연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 : Choi, Bo-G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Jeon, Gwee-Yeon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elf-Esteem Inventory」 (SEI). The 2,451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4, 5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and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middle schools in the city of Taegu. Factor analysis, Pearson's r , Cramer's V , and Cronbach's α were conduct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1) Factor analysis showed that SEI consisted of 4 factors (global, social-peers, home-parents, and school-academics), (2) The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items (Cramer's V) ranged from 0.25 to 0.71, (3) The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scale (Cronbach's α) ranged from 0.69 to 0.84, and (4)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EI with RSES and CSEI ranged from 0.47 to 0.78.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종종 자아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Coopersmith, 1967 ; Harter, 1983 ; 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의 개념은 자아개념, 역량지각등의 개념과 더불어 사회학습이론, 자기지각이론, 사회인지이론등에서 중요시 되어 왔으며 심리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Mussen, Conger, & Kagan, 1980).

개인의 자아존중감 평가와 증진의 문제는 임상치료사, 교사, 프로그램평가연구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평가적 과정을 밝히기 위해 고안된 도구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Harter (1982)는 자아존중감의 조작적 정의를 분명히 내릴 수 없는 것은 자아존중감의 구조에 대한 정의가 개념적 수준에서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최근의 여러 학자들은 자아평가 즉, 자아존중감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전통적인 단일차원 개념의 척도를 반대하고, 한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나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했다(Harter, 1982 ; 1983 ; Pope, McChale, & Craighead, 1988 ; 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90).

그러나 단일차원의 총체적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취급한 많은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생활사에서 나오는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사실과 아동들은 그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는 유능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유능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특수영역 - 예를 들어 가정, 학교, 또래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은 자기자신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물론, 가정, 또래, 학교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관한 영역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영역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더라도 각 문항 점수의 총합

을 산출하여 이용하므로써 실제 자아존중감의 영역별 이용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충분한 타당성의 검증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아의 평가적 의미는 문화로 부터 학습되며, 자아관찰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피드백에 의해 개인에게 적용된다”(송인섭, 1989)는 사실로 미루어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국민학교 고학년 - 4, 5, 6학년 - 과 중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총체적 평가는 물론, 영역별 평가가 가능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의 정의

자아존중감은 광범위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개념정의를 없다(Wylie, 1974).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로는 자기사랑, 자기신념, 자기존경,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기평가, 자기평정, 자기가치, 자기감 및 자아개념이 있다(Wells & Marwell, 1976). 이들중 자아개념은 특별히 자아존중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다(Pope et al., 1988).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가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구별된다. 자아개념은 판단적인(judgmental)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인(descriptive)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자아개념은 그 정의상의 혼란이 자아존중감보다 더욱 심할 뿐 아니라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과학적 구성개념으로서의 정당성이 의심되며(Lowe, 1961), 자아개념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 측정이 가능한 자아존중감을 취급하였으므로(Wylie, 1979; Berk, 1991) 심리학에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자아에 대한 평가적 방향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Damon & Hart, 1982).

자아존중감을 평가적 측면에서 정의한 학자들 중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 또는 가치판단'이라고 하였으며, Gordon(1969)은 '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의 평가지향'이라고 정의 내렸다. Watkin(1978)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일상의 대화나 성격면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Gecas(1972)는 '자아의 평가적 측면, 평가적 태도'라고 했다. Rosenberg(1979)는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Newman과 Newman(1983)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라고, Mussen등(1984)은 '자신의 지각된 성격 또는 특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며 자신의 속성이나 국면에 대한 자기 평가의 총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정의들은 한결같이 평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이 하나의 총체적 평가를 강조했지만, 취학전 아동조차도 자아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느낌을 구별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Harter, 1983, 1990) 자아존중감의 영역, 차원등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졌다. 또한 요인분석에 의해 자아존중감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자아존중감이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Marsh & Gouvenet, 1989).

Harter(1982)는 자아존중감의 분화된 개념으로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아개념의 새로운 모델로서 단일차원적 접근과 다차원적 접근의 통합을 제시하고 특수한 역량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가치에 대해서

도 고려한 척도를 개발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자아평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움을 주며, 특수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총체적 접근과 다차원적 접근의 통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 태도'라고 정의내리고,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총체적 평가로 보는 전통적 접근과 여러 요인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은 물론 특수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자아존중감 척도개발

Rosenberg Self - Esteem Scale(RSES) : RSES(Rosenberg, 1965)는 Guttman 모델에 근거하여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Silber와 Tippett(1965)는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5이며 몇가지 유사한 자아존중감척도와 상관관계가 .56-.83이었다고 보고했다. Openshaw, Thomas와 Rollins(1981)는 RSES가 '긍정적 자아감'과 '자기 비하'의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자가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연구에서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Rosenberg(1979)는 이 주요인이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같은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RSES는 청소년용으로, 총 10개의 문항이며 신뢰도와 타당도도 상당히 높고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매우 간결하며, 간단한 척도를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장할만하다(Crandall, 1973; Wylie, 1974).

Eagly Self-Esteem Scale(ESES) : ESES(Eagly, 1967)는 Hovland와 Janis(1959)의 'Feelings of Inadequacy Scale'을 개작한 것으로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에 반응하는 빈도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한다. 여러 연구에서 척도의 반분신뢰도가 적절히 높았으나(Crandall, 1973),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자료가 없다. Eagly(1967)는 여러 영역을 취급하

는 항목들을 결합하여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일차원적 척도라고 가정했지만 O'Brien(1975)은 직교회전분석을 통해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음을 밝히고 일차원적 특성에 맞게 척도를 개작하거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물론 보다 특수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확대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CSEI) : CSEI(Coopersmith, 1967, 1981)는 각 개인의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CSEI의 내적 합치도 계수의 범위는 4학년에서 8학년까지 .82- .92이며 9학년과 12학년에 대한 3년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2와 .64로 보고되고 있다.

Harter(1982)는 CSEI가 이질적인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영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영역별 자아존중감 척도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으며, 또한 최 보가와 전 귀연(1992)은 CSEI의 구성타당도 연구를 통해 CSEI를 영역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CSEI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임상적 상황에서 보다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된다(Peterson & Austin, 1985).

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y(CFSEI) : CFSEI(Battle, 1981)는 이전에는 Canadian Self-Esteem Inventory로 알려졌던 것으로 개인의 자기자신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려고 고안된 것이다. 아동용 척도(A형)는 또래, 학교, 가정에 관련된 특수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일반적 자아가치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축형(B형)은 짧은 시간내에 시행하는데 유용하다. CFSEI는 방어성 정도를 나타내는 하위척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CFSEI의 구성타당도에 대한 보고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규준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권에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CFSEI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이며 카운셀링이나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권장된다(Adams, 1985).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PHCSCS) : PHCSCS(Piers, 1985)는 처음에는 아동의 단일 차원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으나 후에 자아존중감의 6가지 국면 - 행동, 지능 및 학교지위, 신체적 외모와 속성, 불안, 인기 및 행복과 만족 - 을 측정하려고 더 한층 개발되었다.

Shavelson 과 Blous(1982)는 PHCSCS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했다. PHCSCS는 몇주에서 1년까지의 간격으로 시행된 전체점수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2-.96이다. α 계수는 .90이고 KR-20을 사용한 신뢰도는 남,녀에서 .88-.93이다.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 (KR -20)는 약간 낮았지만 .73-.81로 상당히 높다(Piers, 1985).

PHCSCS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데 심리 측정적으로 가장 건전한 도구로 여겨져서 교실에서 평가도구로, 임상적 평가에 대한 보조도구로, 또한 연구도구로 권장된다(Jeske, 1985).

Tennessee Self-Concept Scale(TSCS) : TSCS(Fitts, 1965)는 12세이상 대상에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졌다. 이 검사는 카운셀링용(C형 : Counseling Form)과 임상적·연구용(C & R형 : Clinical and Research Form)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TSCS가 상담·연구·임상적 실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중의 하나이지만 척도의 내적합치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하위척도의 구성타당도 분석에 관한 연구의 부재 및 채점방법의 번거로움을 들어 사용시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Wylie(1974)는 이 척도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Walsh(1984)는 이 척도가 비록 특정한 차원의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을지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임상적 도구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척도는 정원식(1968)이 자아개념 검사를 만들 때 골격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검사로서 우리나라에서 널리 소개되어 사용되는 검사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타당성 과정 및 실시방법이 자세히 요강에 나와 있으나 구성타당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덧붙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Coopersmith의 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하위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 유치원생과 국민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률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이은혜 등, 1990)와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이은혜 등, 1992)가 일부 행해졌으나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을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기정(1984)은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김호권(1979)과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척도를 근간으로 하여 학문적 자아개념과 신체적, 도구적, 성격적, 감정적, 사회적 자아등 5개 하위척도를 가지는 비학문적 자아개념 검사도구를 만들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에 대한 충분한 분석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개인의 자아평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회화와 김경연(1993)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학교 1, 3, 5학년 남녀 아동 219명을 대상으로하여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여 6요인으로 된 21문항의 척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 요인에 2 문항만 속하는 요인이 두개나 되었으며 몇가지 문항은 요인명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또한 학년당 약 70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도 고려하지 않았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교사평정법과 자기보고법이 이용된다. 교사평정법은 자기보고법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자기보고법과 병행해서 사용된다. 자기보고법에는 자기자신을 기술하는 방법과 평정척도법이 있다. 자기기술법은 기술한 것을 점수화하는 채점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점자마다 평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될 수도 없으며, 평정척도 보다 의미있게 자기

묘사를 더 잘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pitzer, Stratton, Fitzgerald, & Mach, 1966).

이러한 결과와 자아존중감이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평정척도(self-report rating scale)'로 제한하였으며 널리 이용되는 여섯개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이 척도의 일부는 자아개념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아의 평가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연구에 포함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소재한 국민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를 7개구로 나눈후 난수표를 사용하여 5개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구를 대상으로 각 구에서 국민학교는 1개교씩 5개교를, 중학교는 각 구에서 남학교 1개교, 여학교 1개교씩 10개교를 무선 표집했다. 이 때 국민학교는 사립학교와 국립학교를, 중학교는 남녀 공학교를 제외시켰다. 선정된 5개교구에서 4, 5, 6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 각 학년에서 2개 학급씩, 중학교는 5개 남자중학교와 5개 여자중학교에서 1, 2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 한 학급씩 무선 표집을 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표집된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척도구성 및 문항 수집

본 연구는 척도의 구성 및 문항 수집, 문항 선정을 위한 예비 연구,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의 타당도, 양호도와 신뢰도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 하위척도의 구성은 Coopersmith(1967)와 Pope, McHale과 Chaignhead(1988)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개로 구성하였다.

- (1) 총체적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 :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평가이며 아동 자

〈표 1〉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학년	성별	남	여	합 계
	국 민 학 교	4학년	259	240
5학년		261	237	498
6학년		260	232	492
중 학 교	1학년	249	233	482
	2학년	246	234	470
전	체	1275	1176	2451

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 (2)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peer self-esteem) :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한다.
- (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home-parents self-esteem) :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즉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다.
- (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school-academic self-esteem) : 학업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을 포함한다. 즉 학생으로서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 (5) 신체적 자아존중감(physical self-esteem) : 신체적 외모와 능력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로 구성된다. 즉 자신의 외모와 신체적 수행능력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본 범주에 속하는 문항을 여러개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재구성했다. 즉, 국내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Cooper-smith, 1967 ; Rosenberg, 1965 ; Piers,

1985)과 최근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로서 Pope와 그의 동료들(1988)이 보고한 문항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재구성하였다. 이것을 연구대상 학년보다 한 학년 낮은 3학년 학생 한학급에 실시하여 이해가 곤란한 문항을 지적토록하여 5개의 하위 영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총 107개 문항의 예비형 검사도구를 만들었다. 예비형 검사도구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으로 각각 43문항, 18문항, 18문항, 18문항, 10문항으로 구성했다.

예비형 검사도구는 하위척도에 관계없이 전체문항을 무선으로 배열하였으며, Likert식 5점척도로서 문항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단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반대로 계산하였다. 자료는 1991년 12월 1일에서 12일 사이에 대상학생들에게 실시하여 회수하였다. 통계처리 분석은 SPSS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했다.

3. 문항선정을 위한 예비연구

107개문항으로 구성된 예비형 검사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절차는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후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시켜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각 학년별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5개학년에 걸쳐 공통요인으로 묶여지는 문항을 도출하여 척도를 재구성하고 이를 「자아존중감 척도」(The Self-Esteem Inventory)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적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들은 5개학년에 걸쳐 공통요인으로 묶여지지 않아서 재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게 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척도별 문항 번호 및 문항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척도」의 4개 하위척도 및 문항수

하 위 척 도	문 항 번 호	문 항 수
총체적 자아존중감	1, 5, 9, 13, 17, 21	6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10, 14, 18, 22, 25, 28, 31	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3, 7, 11, 15, 19, 23, 26, 29, 32	9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27, 30	8

4. 본 연구

예비 연구를 통해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해서 구성타당도, 문항양호도, 신뢰도 및 기존 척도와 의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켰다.

둘째,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척도간 상관계수 및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 χ^2 및 Cramer의 V계수등을 산출하였다.

세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척도별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네째,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Rosenberg의 SES 및 Coopersmith의 SEI와 「자아존중감 척도」간의 상관계수를 하위척도별로 산출했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구성타당도

요인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32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회전방법은 요인구성의 명료성을 위해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는 각요인의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이 4개이며, 전체변량의 41.8%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부하량은 .71-.39까지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3.4%를 설명하는 주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두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7.8%를 설명하며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세번째 요인은 6.8%의 설명력을 가지며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네번째 요인은 4.1%의 설명력을 가지고 '총체적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각각 명명된다.

2. 문항양호도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척도간 상관계수 및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 χ^2 및 Cramer의 V계수등을 산출하였다. 각 하위척도별로 응답 총점을 기초로 상위 약 27%를 각각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고 각 문항별 반응빈도가 두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χ^2 검증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V계수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4개 하위척도별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가 문항-전체척도간 상관계수보다 더 컸다. 이는 하위척도내 문항들이 동질적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4개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에서 χ^2 값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Cramer의 V계수가 .25-.71의 범위로 Ahmann과 Glock(1967)에 의하면 만족스러운 변별도를 보이고 있다.

〈표 3〉 「자아존중감 척도」의 요인 행렬표

문항 \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h ²
2	.69	.15	.08	.16	.54
6	.67	.14	.05	-.00	.47
10	.66	.18	.18	.17	.54
14	.66	.18	.09	.24	.54
18	.63	.06	-.06	.07	.41
22	.61	.19	.13	.22	.48
25	.57	.11	.17	.08	.38
28	.56	.03	.09	.23	.38
31	.52	.13	.03	.11	.30
3	.11	.71	.07	.18	.56
7	.02	.70	.09	.15	.53
11	.21	.66	.21	.20	.57
19	.03	.63	.03	.08	.41
15	.18	.63	.10	.04	.45
23	.17	.53	-.03	.08	.41
26	.25	.51	.17	.26	.43
29	.29	.44	.23	.33	.45
32	.27	.41	.02	.10	.25
4	.09	.13	.67	-.03	.48
8	.15	.16	.64	.03	.46
12	.06	.06	.60	-.15	.39
27	.03	.01	.56	-.02	.32
30	.05	-.05	.53	.00	.28
20	.03	.16	.53	.07	.31
24	.09	-.08	.50	.19	.30
16	.03	.19	.49	.03	.28
1	.21	.20	.12	.65	.52
5	.07	.23	-.02	.62	.45
9	.19	.18	.02	.61	.44
13	.21	.11	.10	.61	.44
17	.07	.15	-.15	.51	.31
21	.25	.04	-.00	.39	.22
고유치	7.49	2.50	2.09	1.29	
설명변량(%)	23.4	7.8	6.5	4.1	
총설명변량(%)	23.4	31.2	37.8	41.8	

〈표 4〉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척도	문항	문항점수의 평균	문항점수의 표준편차	문항-하위 척도간 상관계수	문항-전체 척도간 상관계수	χ^2	Cramer's V	문항의 신뢰도 α
총체적 자아존중감 ($\alpha=.69$)	1	2.97	1.27	.70	.51	481.08 ^{***}	.59	.60
	5	3.87	1.15	.63	.38	267.16 ^{***}	.44	.63
	9	2.99	1.28	.67	.43	327.32 ^{***}	.49	.62
	13	3.25	1.16	.64	.44	388.68 ^{***}	.53	.63
	17	3.60	1.25	.55	.25	97.71 ^{***}	.26	.67
	21	2.67	1.36	.54	.32	151.63 ^{***}	.33	.69
사회적 자아존중감 ($\alpha=.84$)	2	2.41	1.15	.72	.54	507.27 ^{***}	.61	.81
	6	3.30	1.30	.68	.47	368.59 ^{***}	.52	.81
	10	2.44	1.04	.71	.59	402.91 ^{***}	.54	.81
	14	2.80	1.06	.72	.57	495.65 ^{***}	.60	.81
	18	2.88	1.29	.61	.37	271.94 ^{***}	.44	.82
	22	2.94	1.14	.69	.56	583.72 ^{***}	.65	.81
	25	3.04	1.13	.62	.49	350.67 ^{***}	.50	.82
	28	2.48	1.08	.60	.44	318.73 ^{***}	.48	.82
31	2.94	1.39	.59	.41	294.10 ^{***}	.46	.8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alpha=.83$)	3	3.29	1.31	.71	.52	452.94 ^{***}	.57	.80
	7	3.54	1.32	.67	.47	417.75 ^{***}	.55	.80
	11	3.16	1.29	.74	.63	693.46 ^{***}	.71	.79
	15	3.03	1.28	.59	.40	407.57 ^{***}	.54	.81
	19	4.19	1.15	.64	.49	295.41 ^{***}	.46	.81
	23	3.55	1.29	.58	.41	307.87 ^{***}	.47	.82
	26	3.16	1.29	.67	.57	687.50 ^{***}	.71	.80
	29	2.67	1.19	.65	.61	224.84 ^{***}	.40	.80
32	3.36	1.33	.54	.41	331.00 ^{***}	.49	.82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alpha=.72$)	4	2.95	1.26	.67	.50	308.89 ^{***}	.47	.67
	8	2.90	1.35	.67	.55	383.34 ^{***}	.53	.67
	12	2.90	1.23	.59	.37	134.55 ^{***}	.31	.69
	16	3.63	1.22	.55	.50	227.87 ^{***}	.41	.70
	20	2.85	1.24	.53	.48	221.18 ^{***}	.40	.70
	24	3.24	1.14	.56	.44	150.89 ^{***}	.33	.71
	27	1.89	1.17	.51	.37	152.42 ^{***}	.33	.70
	30	2.18	1.29	.54	.43	87.37 ^{***}	.25	.71

*** p<0.01

3. 신뢰도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 주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척도별 Cronbach α 계수는 .69-.84범위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수용되는 것이 .70임을 고려하면(이영준, 1991),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4. 공인타당도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척도별로, Rosenberg의 SES 및 Coopersmith의 SEI(1967)와 「자아존중감 척도」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는 .47-.78까지로 나타났다. 총체적 자아존중감 척도가 .47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나 .40이상으로 수용할 만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써, 일차적으로 국민학교 고학년 - 4, 5, 6학년 - 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총체적 평가는 물론 영역별 평가가 가능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5개 하위척도로 구성하고 문항을 수집하여 예비형 검사도구를 만들었다.

예비형 검사도구를 국민학교 4, 5, 6학년 아동과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 2,451명에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5개학년에 걸쳐 공통요인으로 묶여지는 문항을 도출하여 척도를 4개의 하위척도로 재구성하여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인타당도, 문항 양호도, 신뢰도, 공인타당도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명료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4개의 하위척도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문항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 문항-전체척도간 상관계수 및 χ^2 와 Cramer의 V계수등을 산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문항-하위 척도간 상관계수가 문항-전체 척도간 상관계수보다 더 컸으며, χ^2 값이 모두 유의하고 Cramer의 V계수도 .25-.71의 범위로 산출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69-.84의 범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넷째,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와 Rosenberg의 SES와 Coopersmith의 SEI간의 상관계수를 하위척도별로 산출한 결과, .47-.78의 범위로 수용할 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 척도」가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로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표 5> 「자아존중감 척도」와 각 척도간의 상관계수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의 SES	Coopersmith의 SEI
하위척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47	.47
	사회적 자아존중감	.	.78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	.69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	.76
전체		.74	.82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구시내 아동에 제한된 점이 척도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여러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척도 사용의 일반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문항의 수집 및 제작과정에서 기존의 관련 문헌들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은 최대한 수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자신에 대한 묘사를 기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기술이 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추후 연구에서 보완이 요망된다. 셋째,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한 문항선택 과정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수가 지나치게 축소된 경향이 있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된 문항의 보완 및 추가가 요구된다. 네째, 본 연구는 다섯개의 하위척도 구성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네개의 하위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이 네가지 요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요인의 개발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다섯째, 본 연구를 실시함에 아동이 편안하게 자신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 나이, 학년에 대한 기록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아동의 가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으며,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척도의 안정성, 즉 향상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여섯째, 검사도구의 예연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 또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토되고 개선되어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김기정,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4.
- 2) 김희화, 김경연, 아동의 자아존중감: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제14권 1호, 1993, 129-139.
- 3) 송인섭,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 1989.
- 4) 이영준, 다변량 분석, 서울:석정, 1991.
- 5) 이은해, 신숙재, 송영주,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연대 생활과학 연구소), 6, 1992, 175-191.
- 6) 이은해, 최혜영, 김미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 유치원용 및 국민학교 1-2학년용 척도 -, 생활과학 논집(연대 생활과학 연구소), 4, 1990, 175-198.
- 7)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검사법요강, 서울:코리아 테스트 센터, 1968.
- 8) 최보가, 전귀연,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SEI)의 구성타당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24, 1992, 1-15.
- 9) Adams, G.R., 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ies for children and adults. In J.V.Mitchell, Jr.(Ed. Ni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Vol.1, pp. 423-424), Lincoln:University of Nebraska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 1985.
- 10) Ahmann, J.S. & Glock, M.D., Evaluation pupil growth:principles of tests and measurement, Boston,Allyn and Bacon, 1967.
- 11) Battle, J., 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ies for children and adults, Seattle, WA:Special Child Publications, 1981.
- 12) Berk, L.E., Child development, (2nd Ed.), Boston:Allyn and Bacon, 1991.
- 13) Coopersmith, S.,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 14)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1967.
- 15) Crandall, R.,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and related constructs. In J. Robinson & P. Shaver (Ed.), Measure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attitude(PP. 45-168). Ann Arbor, MI: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73.
- 16) Damon, W. & Hart, D., The development of

-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5), 1982, 841-864.
- 17) Eagly, A.H., Involvement as a determinant of response to favorable and unfavorable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3), 1967, part2.
 - 18) Fitts, W.H., *Manual: Tennessee self-concept scale*,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1965.
 - 19) Gecas, V., Parental behavior and contextual variations in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2), 1972, 332-345.
 - 20) Gordon, D., Self-conceptions methodologie,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orders*, 148, 1969, pp. 328-364.
 - 21) Harter, 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pp. 275-385), New York: Wiley, 1983.
 - 22) Harter, S.,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 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pp. 292-325), Boston: Allyn and Bacon, 1990.
 - 23)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1982, 87-97.
 - 24) Hovland, C. L. & Janis, I. J., *Personality and persuasi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 25) Jeske, P. J.,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In J. V. Mitchell, Jr.(Ed.), *Ninth mental measurement yearbook* (Vol.1, pp. 1169-1170),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 1985.
 - 26) Lowe, C., The Self-concept: fact or artifact. *Psychological Bulletin*, 58, 1961, 325-336.
 - 27) Marsh, H.W. & Gouvenet, P.J., Multidimensional self concepts and perceptions of control: construct validation of response by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989, 57-69.
 - 28) Mussen, P.H., Conger, J.J., &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5th Ed.), New York: Harper & Row, 1980.
 - 29)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A. E.,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sixth Ed.), New York: Harper & Row, 1984.
 - 30) Musen, P.H., Conger, Kagan, J., & Huston, A.C.,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7th, Ed.), New York, Happer & Row, 1990.
 - 31) Newman, B.M. & Newman, P.R.,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logical approach*, 1975(박아청, 현대발달심리학, 서울: 형설출판사, 1983).
 - 32) O'Brien, E.J., Situational and trait determinants of self-concept change and change in self-presentation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75.
 - 33) Openshaw, D.K., Thomas, D.L., & Rollins, B.C., Adolescent self-estee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981, 273-282.
 - 34) Peterson, C. & Austin, J.J.,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ies. In J.V., Mitchell, Jr.(Ed.), *Ni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Vol. 1, pp. 396-39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 1985.
 - 35) Piers, E.V., *Revised manual for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5.
 - 36) Pope, A.W., McChale S.M., & Craighead W.E.,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1988.
 - 37)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38)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9) Shavelson, R. J. & Bolus, R.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1982, 3-17.
 - 40) Silver, E. & Tippett, J., *Self-esteem: Clinical*

-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6, 1965, 1017-1071.
- 41) Spitzer, S.P., Stratton, J.R., Fitzgerald, J.D., & Mach, B.K., The self-concept: test equivalence and perceived validity, *Sociological Quarterly*, 7, 1966, 265-280.
- 42) Walsh, J.A., Tennessee self-concept scale. In D. J. Keyser & R.C. Sweeland(Ed.), *Test Critiques* (Vol. 1, pp.663-762). Kansas City, MO: Test Corporation of America, 1984.
- 43) Watkin, D.,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esteem measuring instr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1978, 171-182.
- 44) Wells, L.E. & Marwell, G.,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Vol.20),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1976.
- 45) Wylie, R., *The Self 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Rev.Ed.)*, Lincoln: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9.
- 46) Wylie, R., *The Self-concept(2nd 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4.

〈부록〉 「자아존중감 척도」 (the Self-Esteem Inventory)

정말로 내 경우와 같다.	대부분 그렇다	보 통 그렇다	약간그런 것 같다	전혀그렇 지 않다
------------------	------------	------------	--------------	--------------

- | | | | | |
|---|-------|-------|-------|-------|
|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 | | | |
| 2.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 | | | |
| 3. 부모님은 내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 | | | |
| 4.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 | | | |
| 5.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 | | | | |
| 6. 나에게 친구가 많다. | | | | |
| 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 | | | |
| 8.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치 않다. | | | | |
| 9.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 | | | |
| 10.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 | | | |
| 11.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 | | | |
| 12.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날 때가 있다. | | | | |
| 13.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 | | | |
| 14.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 | | | |
| 1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 | | | |
| 16.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 | | | |
| 17.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 | | | |
| 18.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 주는 사람이다. | | | | |
| 19.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 | | | |
| 20. 나는 학교 성적에 실망이 된다. | | | | |
| 21. 나는 자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하다. | | | | |
| 22.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 | | | |
| 23. 우리 가족은 이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 | | | |
| 24.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 | | | |
| 2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 | | | |
| 26. 나는 좋은 딸(아들)이다. | | | | |
| 27. 내가 좀 저 나은 학생이면 좋겠다. | | | | |
| 28.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 | | | |
| 29.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만 하다. | | | | |
| 30.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 | | | |
| 31.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 수 있다. | | | | |
| 32. 나는 우리 가족중 중요한 사람이다. | | | | |